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논평

수신자 - 지역언론사, 군산시장, 군산시의회의원,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
 제 목 - 군산시 소룡동 야외수영장 조성에 대한 우려
 날 짜 - 2013년 8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강태호
 전 화 - 063-471-5331 대표메일-ilovegs98@naver.com
 담 당 - 유재임 사무국장 (016-9778-0779)

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를 충족하기 위한 야외수영장 조성,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위치선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도심 속, 자연체험공간등에 야외수영장 조성하여 소액(2000원~3000원)이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도 이런 목적으로 소룡동에 ‘야외수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13년 본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회계에서 18억원을 편성하였다.

군산시가 조성하려는 소룡동 야외수영장 사업개요는 표와 같다.

[표-2013 주요업무계획과 군산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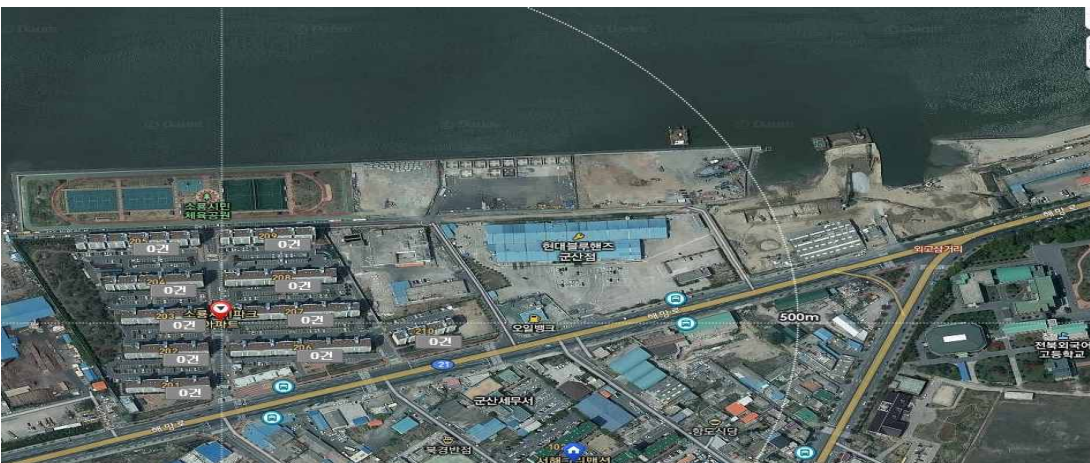
	2012년 투·융자심사 (2012년 10월)	2013년 군산시 정보공개자료(2013년 7월)
총사업비	49억원 (도비 8억원, 시비 41억원)	49억원 (도비 8억원, 발전소 기금 18억원, 시비 23억원)
위치	소룡동 1071-3번지 일원	소룡동 1666번지 일원
규모	12,000㎡	14,046㎡
내용	성인풀, 어린이풀, 주차장등의 사계절 다목적 수영장	야외수영장(성인풀, 어린이풀) 및 주차장등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13.1~6월) 2013추경예산 반영요청(2013.8~9월) 착공 및 준공(2013.10~2014.7월)	조성부지 검토 및 선정(2012.9월) 자체 투·융자심사(조건부) 완료(2012.10월) 사업부지관련 해양항만청 무상사용승인(2013.3월) 투·융자 조건부에 따른 시의원 간담회(2013.5월) 자체 투·융자재심사(위치변경) 완료(2013.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13.7~10월) 야외수영장 조성착공(2013.11~2014.6월)



[2012년 투·융자심사 선정부지-소룡동 1071-3번지 일원]



[2013년 3월 변경된 조성부지-소룡동 1666번지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과 소룡동 야외수영장 부지]

군산시의 소룡동 야외수영장 조성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가 든다.

첫째, 소룡동 야외수영장 위치이다.

2012년 군산시가 자체 투·융자심사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수영장 부지는 현재의 월명선 암벽등반장 부근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 갑작스럽게 군산시가 조성부지로 밝힌 곳은 소룡동 외고 건너편 강변 쪽이다. 하지만 이곳은 항만부지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성비용의 상승이 우려되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모래바람, 공단냄새, 바다냄새등으로 쾌적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장소를 가보면 이런 곳에 실내수영장도 아닌 야외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이 부근(소룡동 제이파크 뒤편)에 조성된 시민체육공원이 경우도 시설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위치선정과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 숫자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차라리 이곳에 여름철 간이야외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듯싶다.)

그런데 군산시는 당초 조성부지보다 쾌적성도 안전성도 떨어지는 부지로 조성부지를 변경하면서 어떤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 조성예산대비 야외수영장 효율성과 운영문제가 나선다.

야외수영장은 운영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운영시에도 무료입장이나 소액입장료를 받아서 공공여가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도심 속 야외수영장은 소규모로 조성하거나, 주변 생태공원등과 연결하여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다.

그러나 군산시의 소룡동 야외수영장 규모는 4000여평(보도되는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발표됨)을 조성할 예정에 있고, 이후 활용계획은 바로 옆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뿐이다.(바로 옆에 시민체육공원이 있는데 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조성위치 자체가 야외수영장을 조성한 후에 사계절 여가문화를 즐기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49억원을 들여서 연간 2개월을 사용하게 된다면 조성예산대비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여름철이 지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2개월 사용을 위해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맞춰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실시설계용역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뒷북행정이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자체투·융자심사(조건부 승인)와 시의원 간담회가 전부인듯 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과 노인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건강과 여가로 즐길 수 있는 수영은 좋은 운동이다. 특히나, 소룡동, 산북동, 공단지역 그리고 멀리 비응항부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운동, 사정동, 대야까지 가야만 된다. 이런 지역주민에서 수영장건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가 소룡동에 조성하려는 야외수영장은 조성위치나 방식(야외수영장)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지역주민들과 군산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군산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라며, 군산시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군산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조성위치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조성장소에 가서 단 10분이라도 서 있어서 보길 바란다.

2013년 8월 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